

# 나주 혁신도시 성장세 위축...인구 첫 감소

### 지난해 빛가람동 109명 줄어...20~30대 주민 비중 30% 턱걸이 한전 재직자 평균 연령 40.5세...8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반등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된 빛가람동 인구가 지난해 처음 감소하면서 2030년 계획인구(4만9499명)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2030 거주민 비중은 30%선에 턱걸이했지만 40세 이상 비중은 처음 40%를 돌파했다.

1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등록인구는 3만9137명으로, 1년 전보다 0.3%(-109명) 감소했다. 나주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래 첫 인구 감소다.

빛가람동 인구는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한 2014년 3895명에서 이듬해 1만2452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2만1405명(2016년)→2만8266명(2017년)→3만819명(2018년)→3만2478명(2019년)→3만6284명(2020년)→3만9246명(2021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첫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세 미만과 20대, 30대 인구는 전년보다 1000여 명 감소하고 40세 이상 인구는 600여 명 늘어났다.

지난해 10세 미만(-389명)과 20대(-274명), 30대(-377명), 90대(-7명)에서는 인구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는 10대(314명 ↑)와 40대(176명), 50대(246명), 69대(101명), 70대(72명), 80대(27명), 100세 이상(2명) 등이었다.

젊은 층 거주민이 감소하면서 2030 비중은 지난해 30.9%로, 통계를 낸 2014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며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40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4년부터 8년 연속 증가하다 지난해 40.8%까지 치솟았다. 10세 미만 인구 비중은 2021년 28.4%에서 2022년 28.3%로 소폭 감소했다.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2014년 2030 비중은 39.4%, 40대 비중은 30.4%로, 각각 10%포인트 안팎 등락을 보였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 재직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말 기준 40.5세로, 1년 전(40.4세)보다 소폭 늘었다. 한전 직원 평균 연령은 2014년(43.7세)부터 8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러기 가족' 양상을 짚어보기로 했다.

앞서 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녀가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에 다니는지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1인 가구 포함)은 전년 연말보다 0.5%포인트 감소한 70.4%를 기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전남신보, 채무감면 캠페인 일시상환자 원금 최대 90%

전남신보보증재단(전남신보)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해 '2023년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 캠페인'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채무감면 사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일시상환 대상자에 한해 심사를 통해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원금 또한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하다.

전남신보는 올해부터 1인 사업자와 직장인 등 누구나 쉽게 채무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추가 발급 서류 없이 신분증과 요청서 작성만으로도 채무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순천, 목포, 여수, 나주, 광양, 해남 등에 있는 전남신보 6개 영업점에서도 채무감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조합장들 공명선거 다짐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앞줄 오른쪽 3번째)가 10일 광주시 광산구 지역본부에서 '2023년 공명선거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지역 농협 조합장과 '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월8일)를 깨끗하게 치르자고 다짐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 광주·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운동 집중 단속

### 위법 신고자 포상금 최고 5억원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적극 안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8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활용에 적극적으로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 전남지역에서 조직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는 지난 6일 기준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광주지역 조직은 아직 없

으며, 전국적으로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전남지역에서는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척 인사문을 동봉해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해준다.

특히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9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4명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 1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고 전남도선관위는 전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첫해 이자 지원

### 1억2000만원 규모 협약

광주시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대출 '미소금융' 첫해 이자를 지원해줄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광주북구법인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1억2000만원 규모 미소금융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미소금융은 정책 서민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창업 인차보증금 대출은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 등은 각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올해 지원하기로 했다.

석 달 연속 연체 없이 정상 상환하면 기존 대출 금리인 연 4.5%를 3.5%로 인하해준다.

지원 대상은 개인 신용 평점이 하위 20% 해당자와 차상위 계층 및 기초 수급권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금 잔액 27억원과 올해 신규 대출 규모 14억원에 대해 이자보전이 적용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를 포함해 1인당 평균 20만원

정도 이자를 지원받겠다고 가정하면 약 6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센터 측은 내다봤다.

3년 기한으로 1000만원을 빌리면 원리금 균등 상환할 때 1년간 이자액 38만3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자 환급액은 이자를 낸 다음 분기에 지급된다.

지난해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북광주법인은 광주시 북구와 협약을 맺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4000만원가량 이자를 환급했다.

김재철 북광주법인 대표는 "높은 금리의 대부분을 이용하려 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352-155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aT, 전남 자립준비 청년 홀로서기 지원

### 청년 6명에 300만원 후원금 전기담요 등 생활용품 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남지역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10일 후원 행사를 열었다.

김춘진 aT 사장은 이날 나주 본사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에 전남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300만원 상당 후원금을 전했다.

이 후원금은 전남 청년 6명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 꾸러미를 만드는 데 활용된다.

그릇과 주방용품, 전기담요, 이불 등 18가지 필수 생활용품으로 구성된다.

보호 종료 아동이라 불렀던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복지법상 법적 보호시설에서 보호받던 중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한다.

aT는 지난해부터 자립준비 청년이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첫 살림 지원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aT는 전남 자립 청년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했다.

김춘진 사장은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소외 아동과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 윤달 이장 하실 분
-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